

제2360호 2019. 6. 9. **성령 강림 대축일(그라츠 자매교구의 날)**

하느님의 영향력 - 성령

지금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개인방송이나 SNS를 통해 자신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표출하는 매체의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조금씩 내 안에 쌓이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영향에 의해서 숨 쉬는 공동체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탄생한 교회는 성령이 뿜어져 나오는 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기도, 성경공부, 봉사 등을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영향을 받기 위해 스스로 찾아 나섭니다. 스스로 하느님을 찾고 있지만,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느님의 엄청난 영향력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느님에게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느님의 대상이 되어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교회를 설립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어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또 하나의 예수가 되어서 각 지역으로 파견되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던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과거에 제자들이 하느님의 큰 영향을 끼치며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성령이신 하느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서성민 미카엘 신부 | 반송본당 보좌

주일 진례

입 당 송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본 기 도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 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제 1 독 서 사도 2,1-11

화 답 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제 2 독 서 1코린 12,3ㄷ-7.12-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요한 20,19-23

영 성 체 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옛날 옛적에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주는 마녀의 저주에 걸렸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첫 키스만이 그 저주를 풀 수 있었다.
공주는 불을 뿜어대는 무서운 용이 지키고 있는 성 안에 갇혀 있었다.
용감한 기사들이 그 끔찍한 감옥에서 공주를 구해내려고 애썼지만 아무도 성공 못했다.
가엾은 공주는 아주 높고 뾰족한 탑의 꼭대기 방에서,
언젠가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 첫 키스로 자신을 구해줄 날을 기다렸다.

-영화, 슈렉

저주를 건 이는 마녀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주가 걸리도록 결정적 선택을 내린 이는 공주 자신, 공주 '병'에 걸린 공주입니다.

저주(원죄)에 걸린 이유는 사랑(하느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거부한 이가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현실, 참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정한 사랑을 기다린다 착각하면서 여전히 환상을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를 거부하고 아직도 환상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옛 백성이, 또한 새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현실 안위의 기도만을 하느님께 올리는 많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목말라하는 환상은 나를 계속해서 저주에 묶어두고 눈멀게 하여 진짜 왕자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느님은, 백마가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2019 엠마오 여행 (루카 24,13-35)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선물은 본당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 | |
|-------------------------|------------------------------|
| •가음정성당 김희순 데레사 | •삼계성당 박타훈 요셉, 조현수 루크레시아 |
| •가좌동성당 김창대 바오로 | •옥포성당 이재임 마리아 |
| •대건성당 함근자 글라라 | •중앙동성당 김희숙 |
| •대방동성당 박명호 돈보스코 | •칠암동성당 정돌아 글라라 |
| •명서동성당 문희숙 미카엘라, 한규혁 루카 | •팔용동성당 최현영 마리아 도미니카, 박두이 요안나 |
| 김봉숙 베로니카 | 홍성미 유리안나, 최숙경 미카엘라 |
| •사림동성당 이계숙 마리아, 박준우 마르코 | •하청성당 이판석 바오로 |
| 박종규 요셉 | •회원동성당 오행철 베네딕도 |
| •사파동성당 정재엽 (mighty929) | 김상임 (kimsangim) |
| •산호동성당 박윤식 에밀리오 | |

말씀풀이 정답: 모리아, 용서, 시나이 산, 강복, 성령

● 브레시디움 소식



| 대방동성당(주임: 황병석 파스칼 신부) 천사들의 모후 브레시디움은 5월 15일 2000차 기념주회를 가졌다. 단원들은 타 브레시디움 단장 배출, 꼬미씨움 간부, 사목위원,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성모님의 군대로서 활동해 왔다.



| 용원성당(주임: 이정근 사도 요한 신부) 성조들의 모후 브레시디움은 5월 22일 1500차 기념주회를 가졌다. 성조들의 모후 브레시디움 단원들은 1990년 창단 후 '겸손'과 '순명'을 항상 마음안에 되새기며 활동해 왔다.



| 완월동성당(주임: 이주형 예로니모 신부) 평화의 모후 브레시디움은 5월 24일 2000차 기념주회를 가졌다. 평화의 모후를 거쳐갔던 단원들도 초대하여 이야기도 듣고, 직접 준비한 점심을 나누었다.

● 사제평의회

| 2/4분기 사제평의회가 5월 28일 교구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평의회는 총대리 박창균 시메온 신부의 주재로 교구청 각 국장 및 평의회 담당 신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였다. 회의는 교구청 각 국 업무보고와 지구·지역장 사목보고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안건으로는 냉담 교우와 행불자들의 관리에 대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다른 교구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여 다음 평의회 때에 보고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교구 꾸르실료 50주년



| 교구 꾸르실료(담당: 이청준 F. 하비에르 신부, 주관: 김경순 스테파니아)는 5월 11일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에서 교구 꾸르실료 도입 50주년 행사를 열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시편 46,11)를 주제로 열린 올프레야는 꾸르실리스타 1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구장 배기현 주교는 강론을 통해 “꾸르실리스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이라며 격려했다.

● 제29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홍보위원회(위원장: 옥현진 주교)는 제29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에 MBC경남의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끌려간 사람들, 지쿠호 50년의 기록’(정영민 취재기자, 강건구 촬영기자)을 선정하였다.

대상 수상작은 석회 광산과 탄광 밀집지인 일본 지쿠호 지역에서 극한 노동 끝에 숨겨진 수많은 조선인 강제 징용 노동자들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추적한 작품으로, 13만 건에 달하는 고(故) 김광열 선생의 기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생명의 존엄성, 인권, 기록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돌아보게 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Du bist nicht allein)



사랑하는 마산 자매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큰 기쁨으로 지난해 ‘미래를 씨 뿌리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우리 ‘그라츠-섹카우 교구 800주년’ 경축행사를 기억합니다. 그 축제의 장에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님과 마산교구의

대규모 사절단이 참석하셨습니다.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연대감이 어떻게 이보다 더 좋게 표현될 수 있었겠습니까! 복치고 장구치는 한국의 사물놀이 연주단은 우리 교구의 축제를 더욱 멋지고 흥겹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콘스탄틴 주교님과 공동 집전한 기념미사는 지금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축행사 때 선물로 나누어 준 기념메달에 새겨졌던 문구, 즉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Du bist nicht allein”라는 표현은 우리 양 교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세계교회 안에 함께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를 우리는 자매결연의 관계 안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그라츠-섹카우 교구가 세운 ‘미래상’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슈타이어마르크 (그라츠-섹카우 교구가 관할하는 주)의 신앙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하느님을 찾는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난한 이들과 차별받는 이들 옆에 서 있게 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 공동의 길 위에서 교회-존재의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방식들이 펼쳐지고 전개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를 그런 믿음 안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소를 발견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사제와 수도성소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교회에 선사하신 다른 형태의 성소를 발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현재 우리 그라츠-섹카우 교구가 직면한 과제는, 교구 내의 각 본당과 지역 사목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잘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교회를 향한 시선도 중요한데, 특히 우리의 두 자매교구인 마산교구 그리고 브라질의 봄 예수 다 라파 Bom Jesus da Lapa 교구를 향한 시선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양 교구, 즉 마산과 그라츠-섹카우 교구가 미래를 향한 하나의 공동 계획을 세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몇 주 전, 우리는 마산교구에서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열심이었고 이것저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소중한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심도 깊은 나눔과 교류가 있었고 그분들은 우리 교구 내의 많은 사회복지시설도 방문하였습니다. 그 소중한 체험들이 여러분 교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분들의 고귀한 활동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적교류는 언어적 경계를 넘어서는 살아있는 우리 자매교구 결연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 슈타이어마르크에서 ‘마산의 날’을 거행하게 될 때, 우리는 특별히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믿음 안에서 협력과 도우심을 청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시선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로 이끄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9년 자매교구의 날
그라츠-섹카우 교구장
빌헬름 크라우트밋셀

Willhelm Krautmitzel

“구원의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제-하나”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들께서는 미사 전 적어도 5분 전에는 제의실로 들어가십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헹기침 두어 번 한 다음, 잠시 몸을 추스르고 나면 제의를 입습니다. 제의를 입는 순서는 개두포를 어깨에 두르고, 장백의를 입은 다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목에서 아래로 영대를 걸칩니다. 그 위에 전례에 맞는 색깔의 제의를 입으십니다. 하지만 평일 미사 때는 약식 제의를 입으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례복을 입을 때 드리는 특정된 기도가 있습니다. <미사 전에 전례복을 입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처음 ‘개두포’(사제가 미사 때 입는 여러 전례복 중에서 제일 먼저 착용하는 것으로, 아마포로 만든 네모난 보자기 형태의 천이다. 옛 로마인들의 목도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양쪽 끝에 두 개의 끈이 달려 있어 사제가 어깨 위로 걸칠 수 있게 되어 있다. -천주교 용어사전)를 입을 때 “주님, 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우시어 마귀의 공격을 막아 내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개두포는 ‘구원의 투구’를 상징합니다. 세상 속에서 온갖 삶의 전투를 치르고 성당으로 돌아왔을 때 신자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사제는 이때부터가 바로 영적 전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세속마귀의 공격에 시달린 신자들과 사제 자신을 위해서 장엄한 영적 전투를 보여 줄 때 신자들은 얼마나 큰 위안을 받고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전투 때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 주는 투구, 구원을 위한 투구가 바로 ‘개두포’입니다. (초기 로마 시대 교회의 사제 중에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얼른 도망가야 했기에, 그분들은 군복을 입고 미사를 거행했답니다. 로마군 투구도 썼겠죠.)

스페인 하숙

영혼의 뜨락
교구 가톨릭 문인회

조정자 이사벨라 • 수필가

텔레비전 예능 프로 중 ‘스페인 하숙’이 인기다. 순례길을 걷다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한다는 내용이다. 미남배우 차승원이 정성스레 빚어내는 요리와 편안한 휴식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유해진과 심오함을 달달하게 해주는 배정남의 말투를 보면서 남다른 감회에 젖어들었다. 나는 그곳을 다섯 번 다녀왔다. 처음 다녀왔을 때는 쏟아낼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입이 다물어졌다. 그 침묵이 나를 또 그곳으로 불러낸 것인지도 모른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는 약 800km이고 완주까지는 개인에 따라 28일에서 40일이 걸린다. 스페인 하숙집이 위치한 곳은 600km 지점인 비아프랑카 델 비에르소라는 작은 마을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울컥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빵과 커피와 버터를 안 먹었다. 순례 중 식사 자리가 유일한 만남의 공간인데 내가 끼면 어찌 되겠는가! 아무리 교양과 지성으로 무장해도 유별나 보일 것이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멸절된 상태에서 남이 먹는 걸 안 먹고 있으면 밉다. 미움은 사소한 감정에서 굳어진다. 그래서 외톨이가 되기를 작정하였고 자연스레 침묵순례로 이어졌다. 나름 침묵 이유를 설명해 보지만 사실은 그분의 계획 아래 내가 작동되었

다. 침묵은 사람으로부터 배제시켰다. 배제는 곧 고립이다. 고립은 나에게서 선택권을 앗아갔다. 선택권이 없어지면 인간은 식물상태나 다름없다. 이성이 살아있는 나에게서는 모진 형벌이었다. 그래도 저항하거나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뺏조각이 빠져나와 발목의 신경을 찌르는 듯한 통증과 베드버그(빈대)에 물려 부은 자리에 진물이 흥건해도 정신을 바짝 차려 세세한 감각과 현상을 직시했다. 그러다보니 고통과 환희가 기류처럼 순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목이 아파 절룩거릴 때 누군가가 즉각 처방해 주었고 밤새 팔을 박박 긁고 있을 때 누군가가 살포시 다가와 꼼꼼하게 약을 발라주고 갔다. 돌이켜 보면 온 생애가 이랬었다. 나는 그 곳을 다섯 번이나 다녀오게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만큼 이 땅에서 잘 살아내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반대로 그분의 특별한 도구로 쓰여야 할 때 그곳으로 불러내어 단련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예감해야 한다. 나의 미래는 ‘다가오는 모든 것’이고 싶다. 이것의 현재는 스페인 하숙에서 보여 주는 세 남자가 아닐까.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최상으로 끌어 올려 아낌없이 내 놓았다.

기억할 사제

6. 14.(금) : 故 문영수 시몬 신부

6. 15.(토) : 故 정삼규 요한 몬시뇰



故 정삼규 몬시뇰 20주기 추도미사

일 시 : 6. 15.(토) 11:00

장 소 :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교 통 : 당일 10:00 월영성당 앞 버스 출발

문 의 : 정영규 신부 055.224.2009

※ 미사 후에 점심 준비 함

교구·본당

■ **신학생(대학원 1년) 영신수련 준비만남**

일 시 : 6. 10.(월) 11: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재무평의회**

일 시 : 6. 11.(화) 10:00

장 소 : 교구청

■ **성경 배경 이야기-성경시대의 사회와 문화**

일 시 : 6. 11.(화) 14:00~16:0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강 사 : 정연우 스테파노 신부

수강료 : 3만 원

문 의 : 성경부 055.249.7025~6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여름방학**

일 시 : 6. 14.(금)

■ **제440차 가나혼인강좌**

일 시 : 6. 16.(일) 13: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 매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 매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 매 (토)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 매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 매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 매 2, 4주 (토) 19:30/ 대건성당

거제 : 매 2, 4주 (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 매 3주 (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 매 3주 (토) 22:30/ 국산공소

문 의 :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 습 : 매주 (화) 19:3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 의 :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위원회·기관·단체

■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 시 : 매월 첫주 (월) 10:00~14:00

장 소 :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 의 : 055.237.6487

■ **교구 여성협의회 상임위원회**

일 시 : 6. 11.(화) 10:3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055.249.7116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일 시 : 6. 12.(수) 10:00

장 소 : 신안동성당

주 례 : 김정훈 라파엘 신부

문 의 :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 **196차 ME 주말 안내(2박 3일)**

일 시 : 6. 14.(금) 19:00~16.(주일) 17: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 197차 ME 주말 : 7. 19.(금)~21.(주일)

● 198차 ME 주말 : 8. 30.(금)~9. 1.(주일)

■ **2019 평화아카데미 -북한과 미국을 가톨릭의 눈으로 바라보기**

일 시 : 6. 19.(수) 19:0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강 사 : 박문수 박사(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문 의 :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수도회

■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50세 이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모 집 : 3월 중~6월/ 해당 지역 전화 요망

창 원 : 010.4542.0347

마 산 : 010.7315.6059

진 해 : 010.8583.4350

거 제 : 010.3807.1618

거 창 : 010.4630.2838

내서·함안 : 010.5006.6254

통영·고성 : 010.2836.7720

산청·함양 : 010.5911.8792

진주하대동 : 010.3009.0650

진주칠암동 : 010.2776.2414

진주신안동 : 010.8831.3311

기 타

■ **서울 삼성산성지 2박 3일 무료 치유 대피정**

일 시 : 6. 14.(금) 18:00~16.(주일) 15:00

장 소 : 삼성산 피정의 집

강 사 : 김지학 요셉 신부 외 전국 유명 강사

내 용 :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출 발 : 마산역 김안과 앞(10:30 출발)

문 의 : 010.7752.0194

라파엘여행사

◆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오르단 10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아테리알주 9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 4일** (13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신세계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VIP 공항투어 웨딩 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국내성지순례

6.22.(토)07:00~ , 충남 공주시

수리치굴+황새바위+송산리교본

참가비 4만 원 / 미래고속관광

우 중 한 리차드 **010.3720.0303**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



명례성지 한국천주교회사 강좌

한국천주교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을 위한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일 정 : 6. 15.(토) 16:00 개강미사 (1년과정)
 평일반 : 매월 3주(화) 11:00 미사 후
 주말반 : 매월 3주(토) 16:00 미사 후
 장 소 : 명례성지/ 회 비 : 10만 원
 강 사 : 신은근 신부, 최문성 신부,
 조미형 수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인 원 : 각 반 선착순 50명
 신청 및 문의 : 조미형 수녀 010.5877.3217



2019년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주 제 :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마태 5,9)
 일 시 : 6. 25.(화) 10:00~14:00
 장 소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신 청 : 6. 15.(토)까지/ 팩스 055.249.7168
 선착순 80명 마감
 참배 : 3만 원(경남 504-07-0096809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입금자명 : 본당 또는 단체명)
 준비물 : 미사준비, 신분증
 문 의 :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뒤하고 살았노, 간만에 함 볼까?

가정사목국에서 아버지·어머니학교 후속프로그램 차원에서 총동창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 시 : 6. 29.(토) 09:00~16:30
 장 소 : 창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대 상 : 아버지·어머니학교 졸업생 및 가족
 교육비 : 1인당 1만 원
 입금계좌 : 농협 301-0003-8497-31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 청 : 6. 21.(금)까지 (선착순)/ 본당사무실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29차 청년성령세미나 (2박3일)

일 시 : 6. 28.(금)14:00~6. 30.(주일)16: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청년
 참배 : 9만 원
 입금계좌 : 경남 593-22-0355398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 청 : 6. 19.(수)까지 (참가비 입금순 40명)
 문 의 : 청년성령쇄신봉사회 myhs.or.kr
 010.8864.7067, 010.9113.7062
 ※ 파견미사 6.30.(주일) 14:00



약혼자 주말 (2박3일)

일 시 : 6. 21.(금) 19:00~23.(주일) 16:00
 장 소 : 성령흠송수녀원
 대 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2년 미만의 신혼부부
 교육비 : 1인당 12만 원(부부당 24만 원)
 입금계좌 : 농협 301-0003-8497-31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 청 : 6. 14.(금)까지 (선착순)
 접 수 : 본당사무실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교구 성령기도회 낮피정

일 시 : 6. 17.(월) 13:00~17:30
 장 소 : 월남동성당
 주 제 : 영적 내적 치유
 강 사 : 이영숙 베드로 수녀(한국순교복자수도회)
 미 사 : 이동진 안셀모 신부(교구 성령쇄신담당)
 문 의 : 010.5072.5612
 ※ 찬미, 강의, 치유, 미사, 안수 있습니다.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6. 10.(월) 19:00	월남동성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동진 신부(안셀모)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5072-5612
창원지구	6. 10.(월) 19:00	반 송 성 당	제7강 : 그리스도 안의 변화	박혁호 신부(미카엘)	박혁호 신부(미카엘)	010-9969-5340
진해지구	6. 10.(월) 19:00	중 앙 성 당	성령! 그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	정인숙(세라피나, 용인기도회)	김태오 신부(스테파노)	010-7566-9441
청 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6. 15.(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그리스도의 성령 흠송 수녀회	6. 16.(주일) 14:00~16:00	옥계본원	010-4872-9430	srasco@hanmail.net
한국의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 성소국장 신부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품격 순례 본도여행사

www.bundotour.com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제주고리예, 발간,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10월 12일	파티마, 루르드, 바티카 성모발현지순례	13일	399 만원

▶ 출발 확정·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본도여행사 02.852.8525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가톨릭신문 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 ▶ 7/5 **바르셀로나, 파티마, 루르드** 11일 395만원
- ▶ 7/12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12일 375만원
- ▶ 7/15 **러시아, 코카서스 순례** 12일 475만원
- ▶ 9/3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 프네우마

프네우마(Pneuma)는 숨과 호흡을 뜻하는 희랍어다. 원형은 동사 프네오(Pneo)로 바람이 분다는 뜻이다. 프네우마 원래 의미는 움직이는 공기라 할 수 있다. 희랍인은 이 공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희랍어 성경에선 성령이 프네우마로 표기된다. 유대인은 기원전 3세기 히브리 경전을 희랍어로 번역했다. 당시 대부분 유대인은 히브리말보다 희랍어를 사용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전승에 의하면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해 번역을 맡겼다. 70인 역이라 불리는 이유다. 로마식 표기는 LXX. L은 50, X는 10이다.

프네우마는 히브리어 루아흐(Ruah)의 번역이다. 창세기에 의하면 주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실 때 숨을 이용하셨다.(창세 2,7)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뒤 숨(루아흐)을 불어넣자 움직이는 인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루아흐는 주님의 숨과 호흡을 표현한 단어다. 구약성경에 300회 이상 등장한다. 그만큼 히브리인을 사로잡았던 말이다. 그 루아흐가 희랍어 성경에선 프네우마로 번역된 것이다. 우주의 바람 역시 주님의 숨이요 호흡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국교포에 나섰던 예수회 신부들은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한다. 그들은 루아흐와 프네우마 번역을 고심하다 성신聖神으로 표기했다. 거룩

한 귀신이란 뜻이다. 1977년 발간된 공동번역에선 성신을 성령聖靈으로 바꿨고 지금은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고대 희랍에선 프네우마를 의학용어로도 사용했다. 우주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공기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봤다. 피와 함께 생리작용의 근원으로 여겼다. 그러기에 죽음은 호흡중단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프네우마 중단도 죽음이 된다. 영적 죽음이 된다. 살아있음은 주님 숨결 안에 있다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부는 건 우주의 생명을 지탱시키는 그분의 호흡이다.(창세 8,1) 매일 그 바람(프네우마)을 만나는 것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

구약의 판관과 예언자는 보통사람들이었다. 주님의 영이 내리자 초자연적 사람들로 바뀌었다. 주님께서 숨(루아흐)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이다. 성령(프네우마)께서 그들을 움직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영성 생활은 특별한 삶이 아니다. 거룩한 영을 따라가는 삶이다. 나무는 바람이 불면 분명한 반응을 보인다. 현실에서 주님 숨결을 느낀다면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영성 생활이다. 그분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자 흙덩이가 사람이 되었다.(창세 2,7) 성령께서 오시면 죽었다고 포기한 것도 살아난다.

당신의 지구만 홀로 평평하다

다큐멘터리 영화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 플랫 어스(Flat Earth)>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론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구가 '둥글다'는 근거는 약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월식 때 달에 드리워진 지구 그림자를 보고 처음으로 주장한 이후, 마젤란과 콜럼버스 등의 탐험자에 의해 이미 증명되었고 더 확실한 증거는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다.

다큐멘터리는 주인공을 통해 '확증 편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뜻하는 용어다. 플랫 어스 신봉자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유투브' 때문이라고 한다. 영화는 결국 잘못된 정보를 믿는 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이런 사유에 기댄 편향의 오류는 오히려 개인을 더욱 더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사회망 서비스를 통해 수많은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사회망 서비스의 장점도 있지만 잘못된 뉴스를 퍼뜨림으로써 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과학'과 '진실'의 허울을 뒤집어쓴 주장들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아직도 그런 것을 믿느냐?"고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사회적인 소음과 낭비가 너무 걱정된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역시 그 신념이 진실이든, 아니면 그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섞여 있던 부디 당신의 지구만 홀로 평평할 뿐임을 자각하고 자중했으면 좋으련만...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들에 대해 비웃고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선 생각을 달리한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 씨는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많은 상담 경험을 통해 체득한 공감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녀가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던 곳에서 일군의 노인들이 서명대 집기를 부수고 유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소란이 있었다. 그 중 노인 한 명과 대화를 시도하게 됐는데 그 소란에 관해 묻지 않고 "고향이 어디세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하여 한참 대화하였는데 그 노인이 "내가 아까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욕한 건 좀 부끄럽지"라고 하더라. 결국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외 없이 변하게 하는 지점은 논쟁과 설득이 아닌 바로 '자기'라고 한다. 도무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던 사람과 공감하는 법을 배우려면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